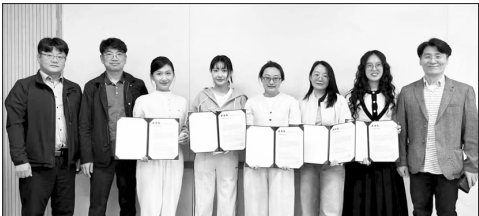




새만금개발공사사장,어린이글짓기대회시상식 참석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지난달 3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주최하고 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글짓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새만금을 주제로 창의적인 글을 선보인 축제의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나경균 사장은 "여러분의 상상이 새만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가 이미 멋진 작가이자 꿈을 그리는 주인공"이라며, "바람속 상상과 표현이 앞으로 더 크게 자리나길 응원한다"라고 격려했다. 나경균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기부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수변도시 첫 분양 등 공사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디자인제조공학과, 해외 학회서 연구역량 입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디자인제조공학과 박사과정생 5명이 '2025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회(ASBDA)'에서 최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하며 연구역량을 입증했다. 이 대회는 일본·한국·대만·중국(광저우, 톈진,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국의 기초조형학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협동과정 디자인제조공학과 고청신(지도교수 조광수), 동정정(지도교수 조광수), 원정(지도교수 조동민), 우양(지도교수 조동민), 왕신잉(지도교수 김웅구) 대학원생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청신 박사과정생은 'A Study on the Impact of Natural Material Furniture on the Emotional State of Single Household Users: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AD Model'을 주제로 자연 재질 가구가 1인 가구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정정 박사과정생은 'Visual Representation of Appropriate Service in the Hotel Industry: Influencing Factors and Implications'을 주제로 호텔 서비스의 적정 구간 시작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비일관성과 디자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원정 박사과정생은 'Research on User Information Optimization in Moving Poster Design Under Time Perception'을 통해 시간 인식 하에서의 무빙 포스터 정보 전달 구조와 주의집중 경험을 분석,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향을 제안했다. 우양 박사과정생은 'Research on Interaction Behaviors in the Experience Process of Children's Picture Books'을 주제로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그림책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행동과 잠재적 요구를 분석, 교육 콘텐츠 디자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왕신잉 박사과정생은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ual Differences Across Residential Space Types of Smart Home Security Products Based on Emotional Experience Factors Among New Middle-Aged and Older Adults'라는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의 스마트홈 보안 제품 인식 차이를 주거 공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고창소방서, 2025년 4분기 NEW 투웨이 멘토링 운영

고창소방서는 지난 30일, 직원 간 소통 활성화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4분기 NEW 투웨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고창읍성, 꽃 정원, 전통예술체험마을 등 지역 명소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제52회 고창 모양성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창의 역사·문화를 즐기며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각 부서별 직원이 1명 이상 참여했으며, 특히 고창을 제외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대상이 되어 평소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참여 직원들은 지역 축제 체험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업무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윤한덕 응급의료발전 공로상’ 수상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제도 기반 확립·구급서비스 전문화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이오숙 본부장이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응급의학회 제5회 '윤한덕 응급의료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헌신을 기리고,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 1명에게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 소방공무원에게는 최초의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119구급대의 핵심 역할과 소방의 전문성·공공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오숙 본부장은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2011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주도하여, △119구급대 편성·운영, △구급활동 기록·관리, △구급지도의사 선임, △교육·훈련 및 평가체계 마련 등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2012년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어 신고 접수부터 상담·안내, 출동지령·응급처치·직접의료지도·환자이송·병원연계까지 병원 전 응급의료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119구급대·119상황실 운영지침과 구급차 3인 탑승 기준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술기·약물지침 등을 담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제정했고, 2013년에는 '구급출동지시 프로토콜'과 '직접의료지도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급활동의 절차와 기준을 표

준화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신고 접수부터 CPR(심폐소생술) 안내, 출동, 응급처치, 병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환류하는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해 심정지 환자 소생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별 세부 처치기록 체계를 도입하고, 서울대병원 등 응급의학전문의 평가 결과를 구급대원에 환류해 현장대응 역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도심 출동 과밀 및 농촌지역 이송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펌프차에 구급장비를 탑재한 '펄블린스 시스템'을 국내 최초 도입해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와 구급대원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119구급대의 감염방지·확진자 등 이송체계를 총괄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2025년 1월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 구급활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었다. 이오숙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전국 119구급대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마을,피어나다 제1회 누비고 한마당 개최

남원시농촌종합센터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마을,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1회 누비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12개 거점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거점 간 교류를 통해 남원형 농촌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거점 위원장과 사무장, 주민동아리, 배후마을 주민, 남원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거점별 성과 전시 및 체험부스 △주민 공연 △홍보·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되며, 사예·캘리그래피·가죽공예·천연화장품 등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다양한 성과물과 체험을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 기부자, 인후 3동에 성금 기탁

지난달 30일 오전, 익명의 기부자가 인후3동 주민센터등장국승기) 동네복지집에 35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해 6월부터 매월 이어진 기부는 이번이 열일곱 번째로 지금까지 누적액은 567만 원이다. 기부된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이동가정,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승기 인후3동장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이웃을 향한 꾸준한 온정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발달장애인과 임실치즈풍류 만들기 체험행사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임실치즈풍류 만들기 체험행사'를 열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향토음식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어 K-발효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도내 4개 장애인단체에서 약 45명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임실치즈로 풍류를 만들며 즐겁게 요리하고, 전통 발효식품이 가진 맛과 향, 문화를 오감으로 느꼈다. 현장에는 웃음과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어르신 100세대 희망꾸러미 전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민)가 최근 홀몸어르신 100세대에 희망꾸러미를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이면 더 외롭고 힘든 홀몸어르신들에게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협의체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했다. 희망꾸러미에 담을 선물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린 시간들은 더할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용지면 복지기동대,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경민)가 2025년 하반기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한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순찰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연말까지도 세심하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대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배움을 나눔으로’…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지역 주거복지 새 지평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 민관협력 주거복지사업 성과보고 '우수사례'로 소개돼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25 전주시 민·관·학 협력 주거복지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가 공동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29일 전주시소재생지원센터 다올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거복지 관련 32개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의 민·관·학 협력 주거복지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는 이날 발표에서 '주거취약가구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2023년부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노인주택 5개소 공간개선 사업이 집중 조명됐다. 이 실증사업은 실측·설계·시공지원 등 전 과정을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수행했다. 올해는 편마비 보행장애헤를 가진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를 실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과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고, 바닥 평탄화 및 단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성과보고회장에는 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 공간개선 사례 13점이 전시됐다. 발표를 맡은 정희준(주거환경학과 3년) 학생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적용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보람을 동시에 느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진



로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미선 학과장은 "매년 지역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간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체득하고 있다"며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준화 연구부총장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며, 전북대학교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보건소와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는 지난달 31일, 남원 모운가에서 개소 20주년을 맞아 '20년의 성장, 회복의 하모니'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 동안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해 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뤄낸 성일유엔아이의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일유엔아이 가운누리 봉사단 공연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개회식 및 축사, 감사패 전달식 등에서는 지난 20년간 시설의 발전과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한용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금길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632-0986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무주지사 010-2300-4253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